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5회》

### 제3편

#### 1. 성령의 삼단계

- 1) 1단계 성령 : 불성령(행2:1-4)
- 2) 2단계 성령 : 생수성령(요7:38)
- 3) 3단계 성령 : 이슬성령(호14:5-6)

세 분의 주인공 중 첫째로 출현하신 분이 박태선 영모님이시다. 박태선 영모님의 출현을 시발로 다음 두 분의 주인공의 출현은 어떤 식으로 출현하시여 삼성일체일인 출현된 구세주로 나타나시는가! 그 나타나신 완성자 구세주는 어떤 식으로 완성되시여 출현하시는가! 또 그 세 분의 주인공 중 한 분은 여인으로 출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가! 지금부터 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 1) 1단계 성령 : 불성령(행2:1-4)

박태선님은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남리 148번지에서 1917년 정사(丁巳) 생으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술고래로 술을 먹고 와서는 어머니를 노상 때렸으므로 어머니는 그 시달림을 받고 늘 울며 상심하시면서 지내셨는데, 박태선님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박태선님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외로움에 휩싸인 9살 소년은 매일 새벽에 올리는 교회의 새벽종소리에 마음이 쏠렸다. 그래서 새벽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에 빛을 들여놓은 계기였다. 이후 새벽 예배건 낮예배건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후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군수 물자 생산공장에 입사하여 병역 징집을 면할 수가 있었다.

박태선님은 일본에 가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십일조는 기본이고 십의 구조까지 냈다. 유명한 부흥강사의 집회가 있다면 만사를 치치고 참석했다. 열심히 믿는 자 중 200여 명의 죽어가는 모습을 찾아보았다고 한다. 그 죽음 앞에서 천당가는 모습은 분명다

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여 명 중 서너 명만 빼고는 다 죽음의 고통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죽어가는 모습은 분명 주님품에 안겨 천당가는 모습이 아니라 판단되었다. 그러나 서너 사람은 얼굴에 온화한 빛을 띠면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로 갈 시간이 됐다고 하면서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신앙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도 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었다.

2차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연합군의 일본 폭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수도인 동경까지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 박태선님을 봇건하게 한 것은 조선사람에게 가하는 극심한 차별대우였다. 더 이상 견딜수가 없다고 판단한 박태선님은 1944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어느 교회로 나갈까 생각하다가 발길을 남대문교회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김치선 목사가 “너 태선이 아니냐”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끌려서 남대문교회에 몸담고 신앙하기로 하였다.

남대문교회에서도 열렬한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북을 들리고 노방전도를 늘 하였다. 서울 원효로에 철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돈을 안주머니와 바깥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여 그 돈을 다 수금대(연보대)에 넣은 후에 수금대를 돌리곤 했다. 수금위원이었다. 그래서 박태선님은 “나는 십의 구조를 바꿨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어느 날 이성봉 목사의 부흥집회가 있다고 알려왔다. 박태선님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을 받고자 말겠다고 다짐하고는 맨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로 매달렸다.

사흘째 되는 새벽녘에 용광로의 뜨거운 불덩어리가 박태선님의 전신으로 쏟아 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너무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폐굴때굴 굴렀다. 온몸이 떨리면서 몸을 전부 태워



1937년 이성봉 목사가 서른여덟 살에 불세례를 체험하였다. 꿈에 김익두 목사가 나타나서 안수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손이 너무 뜨겁고 놀라서 침대에서 화다닥 뛰어 올랐다가 떨어지니 꿈에서 깨어났다. 온 전신이 땀으로 흘렀지만 심령은 매우 상쾌하였다. - 이성봉, '말로 못하면', p62.

재로 만들어 날려보낼 것 같았다. 얼마 후에 좀 안정이 되어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얼굴과 온몸은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뜨거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 《참고사항》

이성봉 목사를 통해서 박태선님이 불성령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잘못이다. 박태선님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직접 역사하시어 이끄시는 것이다. 박태선님은 이성봉 목사의 집회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서건 때가 되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였을 것이다. 인류의 구세주를 낳아 키울 위대한 엄마를 출현시키시는 천기 속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은사는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불같은 성령이다.

“오순절날 훌연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크고 급한 바람같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같은 허가 길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 박태선님

위 사도행전의 불같이 임하는 성령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성령이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이라고 하면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은 성령 중에 제1단계의 성령인 것이다. 박태선님은 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어떻든 박태선님은 불같은 성령을 받은 후 온 몸을 태울 것 같은 뜨거움이 10일, 20일, 한 달,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움이 뚝 끊겼다. 그러자 온 몸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하도 이상하여 기도 중에 생각하여 보니 하나님께 실수하여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박태선님은 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슴을 치며 매달리셨다. 한 일주일 통곡하며 매달린 끝에 처음과 같이 온 몸을 뜨겁게 태우는 불성신이 다시 연결되었다. 이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생활을 하니 뜨거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 5-6개월 지속되던 뜨거움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시 뚝 끊겼다. 깜작 놀라신 박태선님은 또 무슨 잘못을 한 줄 알고 긴장했으나 기도 중에 제1단계의 불같은 성령의 역할이 끝이 났음을 깨달으셨다. 불의 성령은 죄를 태우기 위한 성령이다. 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태우면 뜨거운 불은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깜작 놀랄 일이 또 생겼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 이었다.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불의 성령으로 어느 수준까지 죄가 해결됐다. 가도 다시 죄를 지으면 뜨거운 불의 성령이 다시 임하여 죄를 해결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이러한 박태선님의 행적은 하나님의 회복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돋는 뜻에서 여기 남자 고 선생의 예언을 소개하겠다.

東西各國除外(동서각국제외)하고 禮義東方槿花國(예의동방근화국)에 南之朝鮮先定(남지조선선정)하여 朴活(박활)에게 傳位(전위)하사  
- 「격암유록」松家田(송가전)

동서양 각국을 망라한 여러나라를 제외시키고 오직 동방에의지국인 무궁화 꽃피는 나라인 조선 중에서 남조선을 주인공이 나오시는 나라로 먼저 정하시고 그 남조선에서 박태선님에게 세계 인류를 살리는 사명을 맡기셨다.

開國以來初逢運 三八木運始皇出  
(개국이래초봉운 삼팔목운시황출)

- 「격암유록」弄弓歌(농궁가)

개국이래 처음으로 맞는 운인데 38 목운되시는 박태선님이 인류를 구원시키는 첫번째 영적 황제로 출현하신다.

修道先出容天朴(수도선출용천박)을  
世人不知(세인부지) 모르거든 天崩地  
坼素砂立(천봉지탁소사립)을 十勝人  
(십승인)에게 問議(문의)하소

- 「격암유록」桃符神人(도부신인)

수도 끝에 먼저 출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한 박태선님을 세상사람들이

모른다고 하거든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소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십승

인에게 물어보시오.

이와 같이 예언된 첫번째로 출현하신 영적 황제 박태선님이 어떤 식으로 <두 분 하나님(하와 이긴자와 이담 이긴자)>을 회복시켜 삼위의 하나님을 일제로 완성시키시는 기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단에 계속)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하나님의 빛 God's Light

하나님의 몸은 본래 빛이다.  
God's body is originally light.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도 빛이 있다.  
That is why there is light inside the human body.

이 빛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전기가 흐른다.  
Because this light moves, electricity flows through the body.

과학자들도 인체에 전기가 흐른다고 말한다.  
Scientists also say that electricity flows through the human body.

은혜를 입은 사람의 얼굴은 빛난다.  
The face of a person who receives grace shines.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이 빛이기 때문이다.  
This radiance appears because God's spirit is light.

원래 하나님의 몸은 한계가 없다.  
Originally, God's body has no limits.

그 몸은 완전히 자유롭고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  
It is completely free and can move anywhere.

인간의 마음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The human mind also changes depending on how it is used.

마음을 넓게 쓰면 우주도 담을 수 있다.  
When the mind is used widely, it can contain the universe.\*



▲ 구들장 속에서 박하향을 동반한 생수의 성령을 체험하다

#### 2) 2단계 성령 : 생수성령(요7:38)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비극적인 소위 6·25전쟁이 일어났다. 삼팔선이 무너지고 북한군은 물밀 듯이 남한으로 공격해오고 한국군은 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후퇴를 계속했다. 서울이 함락됐다. 북한군의 탱크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서울은 함락되었다. 박태선님은 미처 피난을 빼쳤다. 이북에서 월남한 예수교 장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하면 사형 당할 것이라고 생각된 박태선님은 안방 구들장을 뜯고 그 속에 숨었다. 비는 부슬부슬 오고, 후덥지근한 구들장 속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답답하였다.

너무 숨이 막혀 더 이상 견딜수가 없어 죽더라도 뛰쳐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로 참고 견뎌나가던 중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구들장 밑이 갑자기 시원해지는 것이다. 아니 구들장 밑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박태선님의 몸이 얼음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 시원해지는 것이다.

박하향을 한 바가지 짓이거 밀어넣는 것 같은 진한 향이 코로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또 코로 입으로 시원한 것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입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배로 흘러들어 와서는 온 전신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구들장 속에서도 몸은 날아갈 듯이 둑둥 뜨는 것 같은 상쾌함을 느꼈다. 몸과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태선님은 문

다. 하나님 이것이 미귀의 장난이거든 물리쳐 주시 움소서하고 애원하는 기도를 계속했다. 박태선님이 9살 때부터 둘째기라면 섭섭하다고 할 정도로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분이며, 일본 동경에서도 유명하다는 부흥강사의 설교는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들어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한 터였지만 구들장 속에서 체험하는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박태선님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성경구절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 성경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나를 믿으면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였다. 박태선님은 그제야 당시 이 지금 그 구들장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 생수의 성령임을 깨달은 것이다.

박태선님은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불같은 성령은 다 알고 있지만 생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여 가르쳐 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와 같은 생수의 성령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박태선님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어찌 놀랄지 않겠는가! 박태선님은 인류 역사이래 처음으로 생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늘은 이분을 통하여 하늘의 구세주 출현의 길을 탄탄하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3면에 계속)